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ype of Time Use in the Rural Elderly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조희금**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Professor Cho, Hee-Keu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 typology of time use and analyz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time use in the rural elderly. The research subjects were 1,000 people aged 65 years and over living in the rural areas of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 time-use diary.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e analysis included calculation of the mean and the standard deviation,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luste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time use practices of the rural elderly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work-leisure balance, work-oriented, and leisure-oriented typ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differed according to the type of time use. The work-oriented types showed the highest scores of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oriented types showed the lowest.

Key Words : 농촌 노인(rural elderly), 생활시간 유형(time-use types), 일-여가균형(work-leisure balance) 일 중심(work-oriented), 여가중심(leisure-oriented),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I. 서론

최근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환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였다(연합뉴스, 2019.

02.21.).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직장인의 정년 연장문제, 국민연금 지급시기의 지연, 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의 연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주저자: 조희금(hkcho@daegu.ac.kr)

보여 준다. 그러나 지역이나 직업에 따라서는 이미 65세 이상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집단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은, 우리사회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에 이르는 도시 중심의 경제발전 시기에 자녀를 비롯한 농촌인구의 대부분을 도시로 떠나보내고, 농촌에 남아서 농업을 영위하며 살아온 세대이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볼 수 있는데, 2018년 농가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7세이며, 70세 이상 농가경영주의 비율은 41.9%로 전년대비 3.7%가 증가하였다. 직업별 취업자 수의 통계에서도, 2018년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가운데, 농림어업 종사자는 5.1%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 220만 명 가운데 26.1%인 약 58만 명이 농림어업 종사자이다(통계청, 2018a). 나아가 농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노인인구비율의 약 3배에 달하는 42.5%로 전년의 40.3%에 비해 한 해 동안 2.2%가 증가했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8b). 우리 사회 전체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나, 농촌은 이미 93개의 시군구 지역이 노인인구 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통계청, 2018a).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절반가량은 노인들이며, 전국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인들의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농촌노인들은 최근의 노인문제에서 집중적인 관심이 주어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들이나 도시의 노인들과는 매우 다른 개인적인 특성과 생활조건 및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 이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채로 농업에 종사해 온 농촌노인들의 삶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는 도구는 그들의 하루 생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루 생활시간은 크게 수면, 식사 등 개

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생활시간, 수입을 위한 노동과 가사노동(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학습 등으로 이루어진 의무생활시간, 그리고 그 외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진 여가생활시간으로 구분한다(통계청, 2014). 각 활동영역별 생활시간의 배분은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가 크다. 노인들의 생활시간은 수입노동이나, 학습 등의 의무생활시간이 적은 반면 개인유지를 위한 필수생활시간이나 여가생활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성별, 연령, 거주 지역에 따라 생활시간 배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통계청, 2015).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도시노인에 비해 농촌노인은 1시간 이상 긴 수입노동시간을 갖고 있으며, 필수생활시간이나 여가시간은 짧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필수생활시간은 증가하며,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들의 일상이 다른 연령층과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노인들이 모두 단일한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 선행연구들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삶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노인들의 삶의 유형 구분에서 노인들의 전체적인 삶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들(최종후·소선하·노원희, 2005; 채화영·김주희·이기영, 2011; 정순돌·박현주·오은정, 2013; 김외숙, 2015)과 그보다 더 관심을 받는 것은 노후에 증가한 여가생활시간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들이나(지현진, 2012; 황남희, 2014; 김외숙, 2016; 이향숙·신원우, 2016), 노후에도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김주현, 2007a; 이소정, 2009)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도시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도시노인들과는 다른 삶의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생활만족도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과학 연구들에서 설

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로 선택된다. 노인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현재 삶이 어떠한지,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러한 생활만족도가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는지(권중돈·조주연, 2000; 강성진, 2010; 박순미, 2010; 이신숙, 2011b; 이미경·최영순·남은숙, 2017), 집단 간의 차이는 어떠한지(박기남, 2004; 권미애·김태현, 2008; 남기민·박현주, 2010; 박순미, 2011; 김외숙, 2016; 이향숙·신원우, 2016), 나아가 특정한 노인의 활동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밝히고자 하는(김주현, 2007b, 2016; 이혜자·전동일, 2011; 이정훈·이한우·이옥자, 2014; 이보람·이정규, 2016) 연구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노인보다 더 많은 시간 농업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분석해 보고, 생활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분석을 통해 도시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에서, 농촌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농촌노인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서 단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므로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노인의 생활시간 유형분석

1999년 이후 5년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 결과는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노인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들도 증가했다. 또 전국규모로 조사된 노인생활실태 조사결과를 활용하거나, 연구

목적에 맞는 개인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유형을 분석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의 시간배분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들(정경희, 2001; 김은경·김응렬, 2002; 김진욱, 2006; 이신숙, 2011a)에서 시작하여, 노인들의 생활유형을 분석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들과(이소정, 2009; 최종후 외, 2005; 김주현, 2007a, 2007b; 채화영 외, 2011; 정순돌 외, 2013; 김외숙, 2015), 특정한 활동 특히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지현진, 2012; 이향숙·신원우, 2016; 김외숙, 2016) 이루어졌다.

① 노인의 시간배분 실태

정경희(2001)와 김은경과 김응렬(2002)은 통계청의 공식적인 생활시간조사가 처음 시작된 1999년 자료를 분석하여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생활실태는 노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정경희(2001)는 노인들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커서 농가의 노인은 도시의 노인에게 비해 일하는 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도시노인이 1일 1시간 28분 일하는데 비해 농가의 노인은 그보다 3시간이나 많은 하루 4시간 28분 일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도시 노인들은 농가노인에 비해 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적고,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도시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은경 외(2002)는 역시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한 결과 노인들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특히 여가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가노인보다 비농가 노인의 여가시간이 긴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분석하여서 농촌노인의 생활유형이 도시노인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진욱(2006)은 2004년의 생활시간자료를 분석하여 노년기가 되면 개인유지활동이 증가하고 일 관련 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하나 여가의 질은 열악하다고 하였고, 이신숙(2011a)은 조사를 통해 은퇴한 노인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이들이 요일에 관계없이 개인

유지시간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일 관련시간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② 생활시간 중심 생활유형분석

최종후 외(2005)와 김주현(2007a)은 2004년의 생활시간조사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생활유형을 분석하였다. 최종후 외(2005)는 노인층의 생활유형을 군집 분석하면서 노인들이 생활행동에 사용한 시간량이 아니라 각 행위에 참여한 행동의 건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량을 사용하여 군집분석할 경우 개인유지와 관련된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군집화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할 확률이 커서 개인유지에 관련된 수면, 식사, 낮잠/졸음 등을 하나의 행동건수로 처리하여 분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분석결과 3개의 대집단으로 묶어서: 1집단—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행동에 관련된 여성층, 2집단 주로 교제 및 여가활동 행동에 관련된 남성층, 그리고 일과 관련된 65-69세의 남성층으로 구성된다. 이를 다시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1집단 집안일 중심, 2집단 생산적인 참여를 하는 집단, 3집단 개인적 종교활동 참여와 휴식 중심의 집단, 4집단 교제 및 여가활동을 즐기는 집단, 5집단 집안관리와 가족보살피고, 여가활동을 때대로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유형화 하였다. 이에 비해 김주현(2007a)은 도시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이나 돌봄, 지원활동 및 자기개발 활동 등의 생산적 활동에 사용한 시간량을 기준으로 노년기 생활을 가정활동형, 소극형, 현역유지형, 그리고 자기 향유형으로 나누어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 참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노인들이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세계가 동질적인 세계가 아닌 상이한 생활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유형을 분석한 연구로 채화영 외(2011)는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들은 전체 생활행동 가운데, 필수생활시간을 제외하고 경제생활영역(일-유급 및 무급노동), 가정생활영역(가정관

리, 가족보살피기), 여가생활영역(미디어 활용,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으로 이를 군집분석을 통해 남녀 각각 생활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은 균형형, 생계형, 여가형, 가정적 여가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균형형이 경제적 활동시간과 여가 등의 시간이 균형적이라면, 생계형은 특히 경제생활영역의 노동시간이 치우치게 많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은 여가형, 생계형, 소극형, 살림형으로 구분하여 남성과 여성이 다른 유형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같은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생활유형을 분석한 지현진(2012)은 노인들의 하루 생활행동에 배분한 시간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여가생활유형을 7가지 유형('아직은 일을', '여가보다는 일을', '벗들과 취미생활을', '도시에서 다양한 여가를', '신앙 속에 우정과 취미생활을', '일하며 짬짬이 여가를', '변두리에서 여가')으로 노인들의 각 생활유형에 따른 여가시간량을 분석하였다. 노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운데 거주지역(광역시, 비광역시)은 이들의 여가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거주 노인에 비해 비광역시 거주 노인들은 소극적인 여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여가시간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시간량이 여가생활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의 유무 역시 여가생활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역시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시간배분유형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김외숙, 2015)는 노인의 시간배분연구에서 필수생활시간을 제외한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유지중심형, 일중심형, 여가중심형, 균형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가장 많은 노인들이 여가중심형에 속하고 있으며, 노인의 시간배분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취업여부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노인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농가 노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순돌 외(2013)는 은퇴하기 전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노후생활유형을 분석하였다. 노후의 생활유형을, 가능한 일을 하여 근로소득을 갖고자 하는 일중심형,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자하는 자원봉사형, 그리고 여가활동을 통해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여가활동형의, 3가지 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은퇴 전 베이비부머들은 여가활동형을 가장 희망하였으며, 남성이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일중심형을 선호하였다. 이향숙과 신원우(2016)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노인들이 여가활동 유형을 신체적 활동, 교육적 활동, 정서적 활동, 사회적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③ 특정 활동 중심의 생활유형 분석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로 사회참여 활동을 유형화한 이소정(2009)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유형을 자원봉사 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 중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인의 거주지역은 농촌거주 노인이 경로당 중심형으로 분류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즉, 농촌노인은 도시 노인에 비해 사회참여활동이 경로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노인들이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을 기준으로 분석한 김주현(2007b)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생산적 활동인 읍급노동활동과 사회지원활동을 통해 볼 때, 이들의 현상이 매우 복잡적이며,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함을 밝히고 있다.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비농가 노인의 여가참여 유형을 분류한 김외숙(2016)은 노인들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상대적으로 시간적 비중이 높은 교제, 미디어, 종교, 스포츠, 휴식시간을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여가부족형, 종교중심형, 미디어중심형, 스포츠 중심형으로 여가생활유형을 분류하였다. 비농가 노인들의 가장 많은 비율인

31.6%가 여가부족형에 속하고 있었다. 또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노년층의 여가활동을 유형화 한 황남희(2014)는 분석결과 여가활동 부족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자연친화형, 친목교류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전체 노년층의 약 72%가 여가활동 부족형에 속하여, 여가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상태의 고연령 여성이 여가부족형에 속할 확률이 높고, 경제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속할수록 여가활동 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일에서 물러나 여가를 즐기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 인구학적 속성, 생활시간의 배분,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 성이나 거주지역 등에 따라 매우 다름을 밝히고 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과 거주지역으로 특히 거주지역은 많은 연구들에서 노인들의 삶의 유형을 다르게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즉 농촌거주 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여가시간은 짧고 노동시간이 길다든가(정경희, 2001; 김은경·김용렬, 2001), 농촌거주 노인들이 경로당 중심의 사회활동 참여유형을 가진다든가(이소정, 2009), 도시노인보다 더 소극적인 여가유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지현진, 2012).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김외숙, 2015, 2016; 김주현, 2007a, 2007b; 이향숙·신원우, 2016) 농촌거주 노인들을 제외하고 도시노인이나 비농가 노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거나, 거주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연구이다(정순돌 외, 201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행동에 따른 시간배분은 어떠하며, 생활시간 배분을 근거로 어떻게 그 유형이 구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 노인들 역시 그들의 인구학적 속성이나 생산적 활동에의 참여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의 생활유형의 구분과 생활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영향요인

인간 생활의 궁극적 목적의 하나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고, 이런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는 생활 전반에 걸쳐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혹은 기대에 대한 충족정도로 나타내는 것으로 삶의 질의 개념구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연구들에서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거나(권중돈·조주연, 2000; 강성진, 2010; 박순미, 2010; 이미경 외, 2017). 또는 연구자의 관심이 있는 특정 활동이나 여러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박기남, 2004; 김주현, 2007b, 2016; 권미애·김태현, 2008; 남기민·박현주, 2010; 박순미, 2011; 김외숙, 2016; 이향숙·신원우, 2016).

이들 연구들은 노인들의 성이나 지역, 건강상태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생산적 활동 혹은 경제적 활동의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와 사회참여 활동이나 여가활동 참여가 어느 정도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①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권중돈과 조주연(2000)은 일반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교육정도, 일상생활활동능력, 경제활동 참여여부, 경제생활 애로정도, 주거편이도,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 친구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기남(2004)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노인보다 높았으며, 교육, 거주 지역, 용돈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순미(2010)는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을 비교하여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데,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수준, 사회활동 참여정도 등은 공통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도시노인은 취업기간이나 자녀연락

정도가 의미 있었던 반면, 농촌노인은 현재 노동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였다. 건강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기능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였다(박순미, 2011). 이신숙(2011b)은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시간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경제적 상태가 좋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농어촌 거주 노인만을 대상으로 주관적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본 이미경 외(2017)는 농어촌거주 노인의 교육, 소비생활,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활동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② 생산적 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유급노동활동 및 사회적 지원활동 등으로 구성된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주현(2007b)은, 노인들이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또는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노인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같은 유급노동에 참여하더라도 경제적 기반이 양호하고, 자발적 선택인 경우는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급노동을 선택하는 집단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또 사회지원활동이나 가정 돌봄 활동의 경우에도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활동에 참여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대부분 농촌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정훈 외(2014)는 노인의 비공식적 생산적 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해자와 전동일(2011)은 생산적 활동을 경제활동, 보살핌노동, 사회적참여활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2008년 전국노인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파악한 결과 지역별로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경제적 활동을 훨씬 많이 하고 있었으며, 손자녀 양육활동인 보살핌노동은 도시지역 노인의 참여가 높았고, 사회적 참여활동은 두지역이 유사했으며, 생활만족도는 도시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적 활동의 참여 중 경제적 활동과 보살핌노동은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사회참여활동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생산적 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일관된 정적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이는 김주현(2007b)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생산적 활동 가운데, 노인들이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 돌봄노동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 본 김주현(2016)은 가족 돌봄노동은 특히 여성노인이 그 제공주체라는 점에서 여성노인의 가족돌봄노동인 손자녀 돌봄과 배우자 돌봄이 생활만족도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손자녀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노인에 비해 자신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권미애와 김태현(2008)은 노인들을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집단주의 가치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파악하였다.

③ 사회적 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활동을 생산적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사회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보람과 이정규(2016)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가 모두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참여보다는 사회적 참여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경제적 참여의 경우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경제적 필요가 클 때, 취업 즉 경제적 참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의숙(2016)은 여가활동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가활동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생활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바, 5가지 여가참여 유형 가운데, 종교중심형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미디어 중심형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하였다. 이신숙(2011b)은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시간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V나 라디오 청취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시간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극적 여가나 가사노동, 필수생활시간의 양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활동유형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생산적 활동인 노동(일)에 참여하는 정도 및 사회적 활동인 여가에 참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생활유형을 나누어 생활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연구문제 2]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른 특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자료 수집은 전국(제주도 포함) 농촌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¹⁾. 조사대상의 표집은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3단 층화무작위추출을 사용하였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규모, 읍면, 행정리별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선정은 골목이나 자연부락(마을)별 가구를 방문하여 진행하되, 단독주택의 경우 한 집 건너 한 집씩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아파트의 경

우는 동 및 층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성/연령대별 비례 할당하여 추출하되, 1가구에 1명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의 진행은 다년간 농촌지역의 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1:1 직접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조사원은 농촌지역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전국에서 27명을 선발하였고, 면접원설문지 Role-playing 등을 거쳐 설문지를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구자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면서 질문방법 등의 표준화를 기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와 농촌 노인들의 생활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생활시간조사표로 구성되었으며, 생활시간 조사표는 하루를 오전과 오후 각 12시간으로 나누고 1시간을 20분 간격으로 표시하여 시간과 함께 행동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의 조사표는 10분 간격으로 평일,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농업과 노인들의 특성상 요일에 따른 구분이 의미가 없고, 또 노인들의 생활이 10분 간격으로 생활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조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는 2013년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²⁾.

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로 노인들이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도를 주관적인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에서도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1) 본 연구의 자료는 농촌고령자의 일상생활실태조사(농촌진흥청 연구과제 PJ009555)에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생활시간 유형의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노인의 표집비율이 적은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구비율이 적은 농촌인구의 표집가능성은 더욱 낮아서 생활시간조사에서 농촌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조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생활시간조사는 전체 조사대상자가 26,988명에 이르고, 65세 이상 비농가 노인은 3,767명인데 비해 농가의 노인은 단 84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촌 노인들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농촌노인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감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체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에게 중요한 삶의 측면인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며(이보람·김정규, 2016), 그 외 주거환경, 여가활동,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한다(강성진, 2010).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편적이 아니라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만족도를 여러 생활영역을 다룬 장주호(2010)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농촌 노인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를 구성하는 변수는 본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식생활, 경제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주거환경, 마을의 안전상태, 전반적인 생활만족의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

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Cronbach's α =.850이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농가 여부(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현금소득이 있는 경우를 농가로 정의), 주관적 월 생활비 충분성, 가구유형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과 개인의 건강 및 활동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영양상태, 신체기능 정도, 도구적인 일상활동능력(IADL) 등과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와 같다.

<표 1>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 변수 | | 정의 및 측정방법 |
|------|-------------|---|
| 종속변수 | 생활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본인의 건강상태, 가족생활, 식생활, 경제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주거환경, 마을(동네)의 안전상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등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됨 |
| | 일반적 특성 | 성: 0=남 1=여 연령: 만 연령(세) 학력: 1=무학 2=국졸 3=중졸 4=고졸 이상 농가여부: 0=아니오 1=예(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현금소득이 있는 경우를 농가로 정의) 월생활비 충분성: 월생활비에 대하여 느끼는 충분성 정도 1=매우 부족 ~ 5=매우 충분 가구유형: 0=동거 가구(자녀 또는 배우자) 1=독거가구 |
| 독립변수 | 개인건강 및 활동능력 | 영양상태: The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 Checklist 0~2점: 정상 3~5점: 저위험 6점 이상: 고위험, 점수가 클수록 영양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냄 |
| | | 신체기능: 시력, 청력, 저작 기능 상태의 4점 척도 1=매우 나쁨 2=나쁨 3=중음 4=매우 좋음 |
| | 생활시간 유형 | 일상활동능력(IADL):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Koyano 등(1987)의 도구적 일상활동능력 문항을 참조하여 14개 활동 영역의 능력을 측정함 1=전적 도움 필요 2=부분적 도움 필요 3=혼자서 할 수 있음 |
| | | 일-여가 균형 유형 일중심 유형 여가중심 유형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ver.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하루 시간사용을 토대로 생활시간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 방법(K-평균 군집방법)을 적용하였고, 각 유형별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과 Duncan의 사후검증분석을 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값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넷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군집분석 과정에서 누락된 대상을 제외한 990명이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은 남성 39.0%, 여성 61.0%이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5-74세가 57.2%, 75-84세가 35.2%, 85세 이상이 7.7%이고 평균연령은 74.7세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무학 31.0%, 초등학교 중퇴/졸업 50.9%, 중학교 중퇴/졸업 이상 18.1%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현금소득이 있는 농가는 40.2%, 비농가는 59.8%였다. 월 생활비 충분성은 부족하다가 4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 36.6%이고, 충분하다는 17.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은 혼자서 지내는 독거노인은 29.5%,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동거노인은 70.5%로 나타났다. 개

인의 건강 관련 변수인 영양상태는 정상범위에 있는 노인들이 전체의 28.9%, 저위험 영역에 있는 노인이 19.1%, 그리고 고위험군이 52%로 영양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신체기능은 시력, 청력, 저작기능이 4점 척도에서 평균 2.17점으로 나쁜 상태였다. 일상활동능력(IADL)은 도구적 활동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 2.69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서류기입이나 은행 일보기 등에서는 혼자하기 어려운 비율이 높으나,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인 몸단장 식사준비 등은 혼자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N=(990) | | |
|------------------------------------|--------------|--------------|
| 변수 | 구분 | N(%) / M(SD) |
| 성별 | 남성 | 386(39.0) |
| | 여성 | 604(61.0) |
| 연령 | 65~74세 | 566(57.2) |
| | 75~84세 | 348(35.2) |
| | 85세 이상 | 76(7.7) |
| | 평균(세) | 74.71 |
| 학력 | 무학 | 307(31.0) |
| | 초등학교 중퇴/ 졸업 | 504(50.9) |
| | 중학교 중퇴/졸업 이상 | 179(18.1) |
| 농가 여부(농사를 지으면서 현금소득이 있는 것을 농가로 규정) | 농가 | 398(40.2) |
| | 비농가 | 592(59.8) |
| 월생활비 충분성 | 부족하다 | 453(45.8) |
| | 보통이다 | 362(36.6) |
| | 충분하다 | 175(17.7) |
| 가구유형 | 독거노인 | 292(29.5) |
| | 동거노인 | 698(70.5) |
| 영양상태 | 정상(0-2점) | 286(28.9) |
| | 저위험(3-5점) | 189(19.1) |
| | 고위험(6점 이상) | 515(52.0) |
| 신체기능 | | 2.17(.47) |
| 일상활동능력 | | 2.69(.42) |

2.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

1)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의 구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에 따르면 활동의 대분류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등 총 9개의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 중 ‘이동’은 이동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통계청의 생활시간분석에서는 의무생활시간에 포함시키나, 본 조사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이동 목적이 농사장소로의 이동, 경로당 이동, 기타 등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동시간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학습’과 ‘기타’는 조사 결과 0분으로 집계되어서 이 역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청에서 분류한 9개 활동 영역 중에서 6개 활동(개인유지,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필수생활시간(개인유지 활동), 의무생활시간(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활동), 여가생활시간(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표 3>에서 농촌 노인의 평균 생활시간 배분을

보면, 수면 등 개인유지 시간인 필수생활시간은 11시간, 일 및 가사노동 등의 의무생활시간은 4시간 20분, TV시청, 휴식, 교제 및 여가활동 등의 여가생활시간은 7시간 34분으로 나타났다³⁾. 각 행동의 평균 시간과 함께 표준편차를 보면, 필수생활시간의 표준편차(112분)가 의무생활시간의 표준편차(213분)나 여가생활시간의 표준편차(233분)에 비해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상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농촌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생활시간의 개인차는 적은 반면, 의무생활시간 및 여가시간의 개인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농촌노인들의 생활시간 유형은 의무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의 배분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유형별 구분을 <표 3>에서 보면 먼저 유형 1은 전체 평균값과 비교할 때, 의무생활시간이 4시간 17분으로 평균이면서 필수생활시간은 11시간 38분으로 평균보다 많지만, 여가시간은 6시간 49분으로 평균보다 약간 적은 집단으로 의무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일-여가 균형형’으로 명명한다. 일-여가 균형 유형에는 전체의 41.2%가 속한다. 유형 2는 여가생활시간이 11시간 45분으로 평균보다 1.5배 이상 많고 의무생활시간은 1시간 10분으로 평균의 1/4 수준으로 매우 적으며,

<표 3>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별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분)

| | N(%) | 필수생활시간 평균 (표준편차) | 의무생활시간 평균 (표준편차) | 여가생활시간 평균 (표준편차) | 점수부호 |
|------------------|------------|---------------------|---------------------|---------------------|------|
| 유형 1 (일-여가균형) | 408(41.2) | 698(112) | 257(130) | 409(100) | +-- |
| 유형 2 (여가중심) | 355(35.9) | 626(86) | 70(68) | 705(96) | --+ |
| 유형 3 (일 중심) | 227(23) | 644(97) | 565(101) | 143(66) | -+- |
| 전체평균 | 990(100.0) | 660(105) | 260(213) | 454(233) | |

3) 201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의 필수생활시간은 11시간 46분, 이동을 뺀 의무생활시간 3시간 50분, 여가생활시간 7시간 16분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이를 농촌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농촌노인들은 의무생활시간이 30분정도, 여가시간은 20분정도 더 길고, 필수생활시간은 45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활시간은 10시간 24분으로 평균보다 약간 적은, 여가생활에 편중된 생활시간을 보내고 있는 집단으로 이를 ‘여가중심형’으로 명명하며, 이들은 전체의 35.9%를 차지한다. 유형 3은 의무생활시간이 9시간 25분으로 평균의 2배 이상이면서 여가시간은 2시간 23분으로 평균의 1/2 이하이며, 필수생활 시간은 10시간 44분으로 평균보다 약간 적은 집단으로 이를 ‘일 중심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들은 전체의 22.9%에 불과하다.

각 생활시간 유형별 활동시간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분산분석 결과가 <표 4>이다. 모든 활동별 시간은 일-여가균형 유형, 일 중심 유형, 여가중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형별 활동 시간

내용을 살펴보면, 일-여가균형 유형은 필수생활시간인 수면 등의 개인유지 시간과 의무생활시간 중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수입노동시간이나 여가생활시간 등은 중간 정도이다. 반면, 일 중심 유형은 의무생활시간 가운데 농사일 중심의 수입노동시간이 세 집단 가운데 가장 길며, 가사노동시간도 긴 편이나, 여가시간이 가장 짧다. 여가중심 유형은 농업 등 수입노동시간과, 필수생활시간이 가장 짧고, 가사노동시간은 일 중심 유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길었으며, 여가시간은 가장 길었다.

종합하면, 일-여가균형 유형은 집안일을 주로하며, 개인유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농사일과 여가생활을 적당히 하고 있는 집단이며, 일 중심 유형은 농사

<표 4> 농촌노인의 생활시간유형별 활동시간의 분산분석 결과

(단위: 분)

| 활동 | | 유형 | M(SD) | F |
|--------|------------------------|--------|------------|-------------|
| 필수생활시간 | | 일-여가균형 | 698(112) c | 52.208*** |
| | | 여가중심 | 626(86) a | |
| | | 일 중심 | 644(97) b | |
| 의무생활시간 | 전체 | 일-여가균형 | 257(130) b | 1546.486*** |
| | | 여가중심 | 70(68) a | |
| | | 일 중심 | 565(101) c | |
| | 농사 등 수입노동시간 | 일-여가균형 | 175(150) b | 1141.294*** |
| | | 여가중심 | 27(56) a | |
| | | 일 중심 | 513(133) c | |
| | 가사노동시간 | 일-여가균형 | 82(101) b | 21.689*** |
| | | 여가중심 | 42(58) a | |
| | | 일 중심 | 51(93) a | |
| 여가생활시간 | 전체 | 일-여가균형 | 409(100) b | 2669.313*** |
| | | 여가중심 | 705(96) c | |
| | | 일 중심 | 143(66) a | |
| | 소극적 여가시간 ⁴⁾ | 일-생활균형 | 327(130) b | 526.390*** |
| | | 여가중심 | 534(197) c | |
| | | 일 중심 | 130(69) a | |
| | 적극적 여가시간 | 일-여가균형 | 81(99) b | 130.716*** |
| | | 여가중심 | 171(164) c | |
| | | 일 중심 | 13(33) a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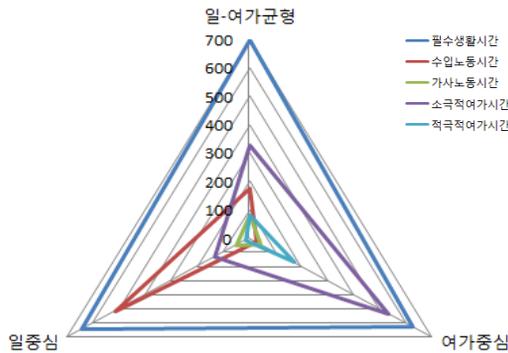
*** p < .001

사후검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소극적 여가시간은 미디어 이용 + 휴식시간이고, 적극적 여가시간은 총 여가생활시간-소극적 여가시간 임

일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가사노동시간이나 수면 등 필수생활시간은 적당하나 여가시간이 매우 짧은 집단이고, 여가중심 유형은 여가시간이 매우 길며, 적당한 가사노동은 하지만 농사일은 거의 하지 않고, 필수생활시간도 짧은 유형이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농촌노인의 생활시간유형별 활동시간(분)

2)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별 특성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일-여가균형형, 일 중심형, 여가중심형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라 성별이나 학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여부는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이 여가중심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아주 적었으며, 반면에 비농가의 노인들이 일 중심에 분류되는 경우도 아주 적었다. 독거노인들은 절반가량이 여가중심 유형에 속했고,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들은 42.3%가 일-여가균형 유형에 속했다. 세 유형 가운데 일 중심 유형의 노인들 연령이 가장 젊고, 월 생활비를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신체기능 상태도 양호했고, 영양상태도 가장 좋았으며, 일상활동능력도 가장 좋았다. 반대로 여가중심 유형의 노인들의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으며, 일-여가중심 유형의 노인들은 중간이었다. 이런 집단 간의 차이는 사후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농촌노인들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라 그들의 활동별 시간과 일반적인 특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중심유형 노인들은 비교적 젊은 노인들로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하면서 농가로서, 월 소득이 비

<표 5> 조사대상자의 생활시간 유형별 일반적인 특성

| (N(%) / M(SD)) | | | | | | |
|----------------|--------------|--------------------------|--------------------------|--------------------------|-------------|------------|
| 변수 | 구분 | 일-여가균형 | 여가중심 | 일 중심 | 합계 | χ^2/F |
| 성별 | 남성 | 152(39.4) | 134(34.7) | 100(25.9) | 386(100.0) | 3.193 |
| | 여성 | 256(42.2) | 221(36.6) | 127(21.0) | 604(100.0) | |
| 학력 | 무학 | 128(41.7) | 120(39.1) | 59(19.2) | 307(100.0) | 6.091 |
| | 초등학교 중퇴/ 졸업 | 211(41.9) | 176(34.9) | 117(23.2) | 504(100.0) | |
| | 중학교 중퇴/졸업 이상 | 69(38.5) | 59(33.0) | 51(28.5) | 179(100.0) | |
| 농가 여부 | 농가 | 180(45.2) | 53(13.3) | 165(41.5) | 398(100.0) | 196.565*** |
| | 비농가 | 228(38.5) | 302(51.0) | 62(10.5) | 592(100.0) | |
| 가구 유형 | 독거노인 | 113(38.7) | 133(45.5) | 46(15.8) | 292(100.0) | 20.779*** |
| | 동거노인 | 295(42.3) | 222(31.8) | 181(25.9) | 698(100.0) | |
| 연령 | | 74.36(6.30) _b | 76.53(6.83) _c | 72.50(5.65) _a | 74.71(6.53) | 28.885*** |
| 월 생활비 충분성 | | 2.63(.91) _b | 2.48(.88) _a | 2.88(.91) _c | 2.64(.91) | 13.295*** |
| 신체기능 상태 | | 2.17(.45) _b | 2.09(.44) _a | 2.28(.50) _c | 2.17(.47) | 12.071*** |
| 영양상태 | | 5.37(3.94) _b | 5.99(3.65) _c | 4.59(3.55) _a | 5.41(3.79) | 9.758*** |
| 일상활동능력 | | 2.69(.42) _b | 2.60(.45) _a | 2.84(.30) _c | 2.69(.42) | 23.463*** |

*** $p < .001$ 사후검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교적 충분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도 좋다. 반면에 여가 중심유형 노인들은 농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층으로, 독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농가이고, 월 생활비가 가장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신체기능이나 영양상태 등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다. 일-여가 균형유형은 월 생활비 충분성, 연령 및 자신의 건강상태가 모두 중간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독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인 노인들이었다.

3.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1)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

다.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20.95점으로 보통인 24점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표준편차도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농촌노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만족도는 보통이거나 약간 불만족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시간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일중심 유형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여가중심 유형에 속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2) 생활시간 유형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본 분석에서 사용된 각 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각각의

<표 6>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M(SD))

| | 전 체 | 일-여가균형 | 여가중심 | 일 중심 | F |
|-------|-------------|--------------------------|--------------------------|--------------------------|-----------|
| 생활만족도 | 20.95(4.20) | 20.96(4.20) _b | 20.23(4.06) _a | 22.07(4.18) _c | 13.620*** |

*** p < .001

사후검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7> 생활시간 유형별 생활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 변수 | 일-여가 균형 | | 여가중심 | | 일 중심 | |
|---------------------|---------------|-------|---------------|-------|---------------|-------|
| | B | β | B | β | B | β |
| 성별(0=남성) | -.545 | -.063 | -.085 | -.010 | -.909* | -.108 |
| 연령 | .049 | .074 | .046 | .077 | .050 | .067 |
| 학력 | .705** | .155 | .061 | .014 | .254 | .053 |
| 농가여부(0=비농가) | .447 | .053 | .387 | .034 | -.013 | -.001 |
| 월생활비 충분성 | 2.053*** | .446 | 2.196*** | .477 | 2.524*** | .552 |
| 가구유형(0=동거가구) | .189 | .020 | -1.108** | -.132 | -.193 | -.019 |
| 신체기능상태 | .961* | .104 | .539 | .059 | 1.795*** | .214 |
| 영양상태 | -.119* | -.112 | -.204*** | -.184 | -.081 | -.069 |
| 일상활동능력 | 1.484*** | .150 | 1.981*** | .219 | .553 | .039 |
| 상수 | 5.158 | | 6.529* | | 5.928 | |
| VIF | 1.244 ~ 1.458 | | 1.094 ~ 1.453 | | 1.175 ~ 1.458 | |
| 공차한계 | .686 ~ .804 | | .688 ~ .914 | | .686 ~ .851 | |
| R ² | .450 | | .464 | | .513 | |
| Adj. R ² | .437 | | .451 | | .493 | |
| F | 36.147*** | | 33.249*** | | 25.444*** | |

* p < .05, ** p < .01, *** p < .001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다중공선성으로 회귀분석에 왜곡을 줄 만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 상관관계와 공선성 진단을 통해 공차한계 값이 .10보다 크고 다중공선성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5.0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7〉에서 일-여가균형 집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월 생활비 충분성($\beta = .446^{***}$), 학력($\beta = .155^{**}$), 일상활동능력($\beta = .150^{***}$), 영양상태($\beta = -.112^*$), 그리고 신체기능상태($\beta = .104^*$) 등이었다. 즉, 생활시간 배분이 일-여가균형 유형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월생활비가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학력이 높고, 일상활동능력이 자립적이며, 영양상태가 좋고 신체기능상태 역시 좋을수록 생활만족도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 유형의 노인들은 특히 자신의 건강관련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수들의 설명력은 45%였다. 여가중심 유형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월 생활비 충분성($\beta = .477^{***}$), 일상활동능력($\beta = .210^{***}$), 영양상태($\beta = -.184^{***}$)와 가구유형($\beta = -.132^{***}$)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월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일상활동능력이 자립적이며 영양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독거거구에 있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6.4%였다. 일중심 유형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월 생활비 충분성($\beta = .552^{***}$), 신체기능상태($\beta = .214^{***}$), 그리고 성별($\beta = -.108^*$)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월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신체기능상태가 좋으며, 여성노인들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변수들의 설명력은 51.3%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농촌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월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요인이었다. 월 생활비 충분성은 이들의 생활시간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에 속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본인들의 건강관련 변수

들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생활시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직 일하고 있는 일 중심유형의 노인들은 신체기능상태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일-여가균형 유형 노인들은 영양상태나 일상활동능력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다가 여가중심형 노인이 되면, 영양상태와 특히 일상활동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일중심유형의 노인들은 일상활동능력이나 영양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신체기능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나, 여가중심 유형 노인들은 시력 청력, 저작기능 등 신체기능은 이미 좋지 않은 상태여서, 식사나 일상활동능력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도시노인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생활하는 농촌노인들의 생활실태를 근거로 생활시간유형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 농촌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생활시간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논의한 다음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농촌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의 농촌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일지가 포함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농촌노인의 생활시간을 필수생활시간, 노동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으로 분류하고, 이 활동시간을 근거로 군집분석(K-mean cluster analysis)을 통해 생활시간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농촌노인은 일 중심유형, 일-여가 균형유형, 여가 중심유형의 3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일 중심유형의 노인들은 1일 9시간 25분의 의무생활시간을 가지고 그 중 8시

간 30분정도를 농사일 등 수입노동시간으로 보내고 50분 정도가 가사노동시간이었기 때문에 여가시간은 매우 짧은 2시간23분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여가 중심유형의 노인들은 1시간 10분정도를 의무생활시간으로 보냈는데 이중 40분 정도가 가사노동시간이어서 수입노동에는 거의 종사하지 않는 유형이었다. 대신 1일 11시간 45분가량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일-여가 균형유형의 노인들은 수면 등 개인유지활동의 필수생활시간을 중심으로 중간정도의 의무생활시간과 여가생활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은 도시노인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농촌노인 내부에서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음을 이들의 생활시간 유형을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농촌노인들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라 그들의 특성도 차이가 있었는데, 일 중심유형 노인들은 농가의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들로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와 동거하면서 월 소득이 비교적 충분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도 좋다. 반면에 여가 중심유형 노인들은 비농가이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층으로, 독거 비율이 높으며, 월 생활비가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신체기능이나 영양상태 등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다. 일-여가 균형유형은 월 생활비 충분성, 연령 및 자신의 건강상태가 모두 중간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면서 농가인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반반이었다.

넷째,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 중심형의 노인이 가장 높고, 여가중심형의 노인들이 가장 낮았다.

다섯째, 모든 유형의 노인들에게 월 생활비 충분성은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그 다음은 본인들의 건강관련 변수들로 이는 생활시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아직 일하고 있는 일 중심유형의 노인들은 신체기능상태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나, 일-여가균형형 노인들은 신체기능뿐 아니라 영양상태나 일상활동능력의 정도가 영향을 미치고, 여가중심형 노인이 되면, 영양상태와 특히

일상활동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농촌노인의 생활시간 유형을 구성해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시기에는 건강하게 농사일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으며 생활만족도도 높은 일 중심유형 노인에서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일-여가 균형유형을 거쳐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농사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지는, 따라서 생활만족도도 낮아지는 여가 중심유형 노인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시간배분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정경희, 2001; 김은경·김웅렬, 2002; 김진욱, 2006; 이신숙, 2011a), 노인이 되면 개인유지 등의 필수생활 시간과 여가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일 관련 의무생활시간이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물론 정경희(2001)는 그 가운데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농촌지역 노인들이 도시노인에 비해 수입노동시간이 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촌노인들은 상당한 정도의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일 중심 유형에 속하는 노인들의 노동시간은 매우 길었다. 일 중심형 노인들은 1일 9시간 이상이 노동시간이고, 그 중 농사일에 사용한 시간도 8시간 이상이였다. 즉 농촌노인들도 그들의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한 일상을 보내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들의 하루 생활 활동을 근거로 분석한다. 그러나 연구들에 따라서는 노인들의 수면 등 필수생활시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거나(최종후 외, 2005; 채화영 외, 2011), 노인들의 삶에서 노동보다는 여가생활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여가생활만을 근거로 유형을 분류하거나(지현진, 2012; 황남희, 2014; 김외숙, 2016; 이향숙·신원우, 2016), 또는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만을

특정하여 분류하고 있다(김주현, 2007b; 이소정, 2009). 나아가 분석대상을 도시노인이나 베이비부머에 특정하기도 한다(김주현, 2007a; 채화영 외, 2011; 김외숙, 2015, 2016; 정순돌 외, 2013).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 많고,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상당수는 농촌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수생활시간을 비롯한 노동과 여가생활 모두를 포함한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통합적 분석을 통하여 농촌노인들의 집단에 따른 특징을 파악할 때, 이들에 맞는 삶의 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 농촌노인들의 삶을 분석할 때, 농촌노인들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농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는 본인의 연령과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에 따라 생활시간유형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김주현, 2007a; 박순미, 2011; 정순돌 외, 2013)하는 것이다.

셋째, 생활만족도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삶의 만족을 느끼는지 정확히 파악할 때, 그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생활만족도는 생활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농사일에 참여하는 일 중심 유형 노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여가 중심 유형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권중돈·조주연, 2000; 김외숙, 2015; 이보람·이정규, 2016; 이해자·전동일, 2011)에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 참여가 많을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한 것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농촌노인의 경우 현재 노동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박순미, 2010)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들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시간 유형에 따라 뚜렷이 구별되는 집단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즉 일 중심유형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관련 노동시간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간단한 농기계를 스스로 작동할 수 있게 교육한다든가, 농업용 기계의 임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접근을 쉽게 하는 등 농사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제적 소득을 증가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여가중심유형의 노인들은 이미 고령이고, 영양 상태를 비롯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독거노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루 세끼의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일이나, 혼자 할 수 없는 은행일 보기 등을 도와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므로, 이들을 위해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루 한 끼의 식사라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면,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13년 전국의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의 변화를 다 설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전국규모의 생활시간 자료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4)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자료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농촌노인의 사례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설문에서도 제약을 받으므로, 앞으로 농촌노인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전국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생활시간과 관련된 연구는 가족자원 경영학 분야의 주된 연구영역이다. 그러나 생활시간 연구가 일상의 삶을 파악하는 연구로 더 많은 학문

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의 시간 양적인 분석에서 나아가 질적인 분석 등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생활시간의 질 및 구성요소 등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성진(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1), 5-36.
- 2) 권미애 · 김태현(2008).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 집단과 경제 활동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080-1111.
- 3) 권중돈 ·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4) 김외숙(2015). 노인의 시간배분 유형에 따른 시간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1), 163-180.
- 5) 김외숙(2016). 노인의 여가참여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23-42.
- 6) 김은경 · 김응렬(2002). 노인의 생활시간 구조 분석. *한국학연구*, 17, 145-175
- 7) 김주현(2007a).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27(4), 739-754.
- 8) 김주현(2007b). 노인 생산적 활동의 복잡성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0(3), 57-81
- 9) 김주현(2016). 한국여성 노인의 가족 돌봄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9(2), 49-70.
- 10) 김진욱(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 11) 남기민 · 박현주(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9, 405-428.
- 12)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13) 박순미(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비교-. *노인복지연구*, 47, 137-160.
- 14) 박순미(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291-318.
- 15) 연합뉴스(2019.2.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08452004>.
- 16) 이미경 · 최영순 · 남은숙(2017). 농어촌 거주 노인의 주관적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한국도서연구*, 29(2), 73-90.
- 17) 이보람 · 이정규(2016).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과 비교. *노인복지연구*, 71(2), 351-377.
- 18) 이소정(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한국인구학*, 32(1), 71-91.
- 19) 이신숙(2011a).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11-325.
- 20) 이신숙(2011b).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35-58.
- 21) 이정훈 · 이한우 · 이옥자(2014). 노인의 공식/비공식적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17(3), 85-110-
- 22) 이향숙 · 신원우(2016).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16(3), 157-165.
- 23) 이혜자 · 전동일(2011). 농촌 ·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1(2), 419-437.
- 24) 장주호(2010). 노인의 생활영역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5) 정경희(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61, 7-18

- 26) 정순돌 · 박현주 · 오은정(2013).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희망 노후생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62, 289-316.
- 27) 지현진(2012). 2009 생활시간자료를 근거로 한 노년층의 여가프로파일. 한국노년학, 32(3), 675-687.
- 28) 채화영 · 김주희 · 이기영(2011). 중 · 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29-146
- 29) 최종후 · 소선하 · 노원희(2005). 생활시간조사에 기반한 노인층 생활유형분석. 한국조사연구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55-70.
- 30) 통계청(2014). 2014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고서
- 31) 통계청(2015). 2015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 32) 통계청(2018a). 2018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 33) 통계청(2018b). 2017 농림어업조사결과
- 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5) 황남희(2014).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34(2), 37-69.
- 36) Koyano, W., Shibata, H., Nakazato, K., Haga, H., & Syunyama, Y. (1987), Measurement of competence in the elderly living at home: development of an index of competence. Japanese Journal of Public Health, 34(3), 109-114.

- 투 고 일 : 2019년 02월 28일
- 심 사 일 : 2019년 03월 25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4월 02일